

# KOSPI, 저가매수 업고 튀어



[ Market Analyst ] 이재원 연구원

## KOSPI는 0.6% 상승한 2,650p. 시장금리 안정시키는 경제지표 발표에 소외된 한국 주식시장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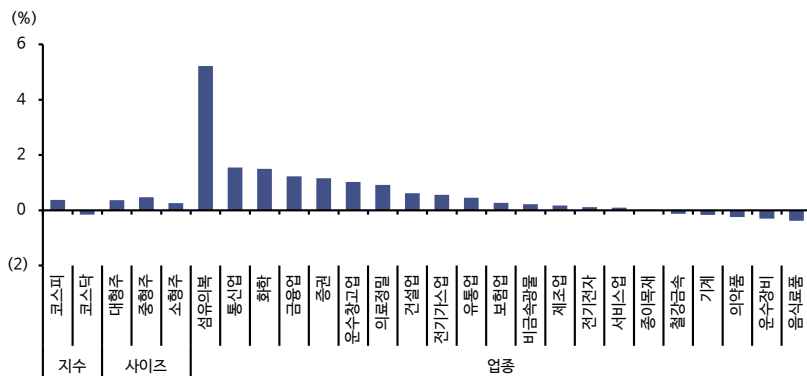
-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차익실현에 하락 마감. 세일즈포스, 콜스 등 예상치 하회한 기업 실적 영향
  - : 세일즈포스(-19.7%),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및 가이던스 발표에 AI 관련 빅테크 동반 하락
  - : 1분기 GDP 수정치 전기 대비 연율 +1.3%.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
  - :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여전히 4.5% 상회한다는 점 경계 요소. 차주 경제지표(2P참고) 대기하는 흐름
- KOSPI는 경제지표 약화에 반락한 시장금리 영향에 가격메리트 부각. 외국인 선물 대규모 순매수에 반등
  - : KOSPI 밸류에이션 점검:12MF PER 9.8배, 12MT PBR 0.94배(전일 증가, Refinitiv 기준)로 장기평균 하회
  - : 외국인 오전 선물 6,000계약 넘는 순매수. 반도체, 금융주 포함 시총 상위 대형주 저가 매수세 유입
  - : 아모레퍼시픽 52주 신고가. 화장품 강세 지속. 낙폭 과대주에 수급 유입에도 차익실현 없는 모습
  - : 금일 MSCI 지수 리밸런싱. 삼성증권, 강원랜드, 카카오페이 등 편출 종목 증가 부근 변동성 유의

## KOSDAQ은 0.3% 하락한 830p.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 매도세에 지수 보합권. 2차전지 약세 지속

- 시장은 개별 이슈에 주목하며 종목별 수익률 차별화. 와이씨, HBM 테스트 중요성 부각되며 강세
  - : 5월 MSCI 지수 편입 종목인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 엔켐은 지수 편입 리스크에 약세
  - : 우주항공(정부,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아이폰(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회복) 강세

원/달러 환율은 미국 1Q24 GDP 잠정치 하향에도 PCE 경계 심리에 1.9원 상승한 1,381.3원  
 아시아 증시 상승. 일본(니케이) +0.3%, 대만(가권) +0.4%, 홍콩(항셱) +1.6%, 중국(상해) +0.4%

업종별 주가 등락률



## 6월 1주차 주요 이벤트

이벤트	세부 내용	영향
<p>한국 5월 수출입동향 (6/1)</p> <p>★★★★☆</p>	<p>제2의 삼양식품, 실리콘투를 발굴하기 위해선 수출데이터 지속 관찰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1~20일 일평균 수출 327억달러.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 반도체 중심 호조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제품 등 일부 구경제 품목 회복 확인돼 양호한 흐름 연장할 전망</li> <li>5월 주식시장 실적 랠리 주인공은 수출에서 비롯. 음식료(필수소비재), 화장품 등 단기간 주가 급등하는 모습. 중국 경기 개선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등 비중국 수출 모멘텀 살아나는 업종에 수급 유입되는 흐름. 실적 모멘텀 지속 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수출 데이터 지속 관찰 중요</li> </ul>	<p>수출 호조=호실적 귀결 업종별 수출 흐름 관찰 중요</p>
<p>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6/3)</p> <p>★★★★☆</p>	<p>중국 경기 개선 여부는 한국 주식시장에 중요한 지표. 수출 견인 등 지수 반등을 위한 트리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한국시간 : 3일 오전10시45분)</li> <li>연초 이후 50.8→50.8→50.9→51.1→51.4. 예상치 지속 상회 및 부합. 상승세 지속하며 중국 제조업 반등에 대한 기대감 상승</li> <li>최근 중국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이구환신, 부동산 정책 등 경기 부양 위한 정부 주도 노력 지속. 다만 4월 중국 동행지표 소비와 투자 여전히 동반 부진한 흐름</li> </ul>	<p>중국 경기 개선 여부에 국내 주식시장 내 중국향 민감주 등 반응 가능</p>
<p>미국 5월 ISM 제조업지수 (6/3)</p> <p>★★★★☆</p>	<p>4월 ISM 제조업지수 예상치 하회. 현재 반등한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4월 ISM 제조업지수 전월대비 1.1p 하락한 49.2를 기록해 컨센서스(50.0)와 전월치(50.3)를 소폭 하회. 다만 당사는 항목 둔화 정도 가파르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 4월 금리 인하 기대 지연으로 인한 시장금리 반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원인</li> <li>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하락은 문제이나 고용, 경제지표(PMI) 최근 연달아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위해서 소폭 하회할 필요. 지난 4월 하회 당시 금리 하락. 현재 반등한 시장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li> </ul>	<p>반등한 시장금리 변동성에 영향</p>
<p>ECB 통화정책회의 (6/6)</p> <p>★★★★☆</p>	<p>6월 주요국내 최초 금리 인하 가능할지, 주식시장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4월 회의에서 5회 연속 동결 결정. ECB 위원들 6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7월 인하에 대한 보수적 입장 견지해 연속 인하보단 1회 인하 후 관망 예상</li> <li>ECB 금리 인하 시 달러 강세로 이어져 미국 및 유럽 주식시장 방향성 엇갈릴 가능성</li> </ul>	<p>6월 주요국 최초 금리인하 기대</p>
<p>미국 5월 고용보고서 (6/7)</p> <p>★★★★☆</p>	<p>최근 고용 견조하며 금리 인하 기대 지연. 반등한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 비농업 취업자 전월대비 17.5만명 늘어 컨센서스 하회. 임금 상승 압력 둔화. 제조업 경기 개선과 함께 제조업 관련 취업자 회복 이어질 전망</li> <li>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하회 등 굳건한 고용지표 지속되며 금리반등, 주식시장 하방 압력 원인으로 작용. 매파적 FOMC를 피하려면 경제지표 예상치 하회가 필요한 상황</li> </ul>	<p>반등한 시장금리 변동성에 영향</p>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 별(★) 개수는 각 이벤트의 중요도 표시

## Compliance Notice

---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재원)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